

기본소득, 인간존재를 키우는 원소적 토대

이명호

경희대 영미문학전공
교수

저는 요즈음 고등학교 과학시간에 배운 고대 그리스의 4원소론을 다시 생각해보곤 합니다. 그리스의 자연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본 탈레스, 공기로 본 아낙시메네스, 불로 본 헤라클레이토스를 거쳐 엠페도클레스에 이르러 물과 공기와 불과 흙, 네 원소의 결합과 분리를 통해 세계의 물질은 생성하고 운동하고 변화한다는 가설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인도 자이나교는 이 네 원소 옆에 식물을 놓고 식물을 우주를 구성하는 제 5원소라고 봅니다. 식물은 생명을 선사하는 4원소들을 모으는 존재이자, 이 원소들에게 적당한 양의 햇빛과 습기와 미네랄과 산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양을 공급하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원소는 그리스어로 ‘스토이케이아’^{stoicheia}라 불립니다. 영어로는 ‘element’로 번역됩니다. 기본이자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원소의 식물적 성격에 민감했던 엠페도클레스는 원소를 “만물의 원초적 뿌리”^{rizomata proton}라고 불렀습니다. 이 원초적 뿌리에서 자라는 세계는 정태적이지 않습니다. 원소들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면서 사랑의 힘으로 여럿에서 하나로 결합하고, 다통의 힘으로 다시 분리됩니다. 사랑과 다통이라는 두 힘과 더불어 네 뿌리는 동등하게 만물의 근원이자 지각능력의 원천입니다. 4원소 중 어떤 원소가 더 일차적이고 중요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엠페도클레스 이후 그리스 철학자들은 생명이 싹트고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활력과 잠재력을 유지하려면 4원소 사이에 적절한 비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

합니다. 적정비율을 유지할 경우 네 원소는 생명의 생성적 잠재력을 키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 문명은 4원소 중에서 불을 특권화하여 다른 원소들을 불에 종속시켜왔습니다. 이로써 원소들 사이의 균형과 적정비율은 깨어지고 맙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불의 창조적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던 반면, 현대인들은 절제감을 잃고 문명 자체를 통제 불능의 대화재로 만들어왔습니다. 지금 인류는 화염의 문명이 일으킬 파국의 조짐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 서구철학의 형이상학적 허무주의를 넘어서고자 했던 하이데거는 고대의 그리스철학에서 존재망각을 넘어설 새로운 사유의 단초를 발견합니다. 그가 소크라테스 이전 그리스철학에서 읽어낸 ‘푸시스’(phusis, 자연)는 ‘스스로 자라고 변화하는 물질’입니다. 푸시스는 죽어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푸시스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사건입니다. 나타남은 나타나지 않음을 숨겨진 여분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성장의 잠재력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가 푸시스라면, 인간 역시 푸시스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존재들과 더불어 내부의 자연과 외부의 자연을 분리시키지 않고 생명의 원소적 토대를 이루는 햇빛과 물과 공기와 땅과 감각적 교감을 나누며 인간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성장의 과제를 이루어냅니다.

스페인의 식물철학자 마이클 마더는 ‘인간되기’^{becoming a human}의 과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인간이 되는 것은 특별히 인간적이라고 여겨지는 생명의 내적 표현이 점차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 존재로서 우리 각자에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인간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¹⁾ 그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를 빌려와 인간되기의 과제를 지원하는 철학의 작업을 ‘쿨투라 아니미’^{cultura animi}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의 경작’이라 번역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키케로에게 철학은 “승화된 식물의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철학만이 영혼을 경작하는 일을 떠맡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의 마음, ‘시의 마음이 행하는 작업’^{詩作}도 영혼을 경작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는 인간 영혼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다른 생명들 곁에서 다른 생명들과 더불어 잘 자라겠다는 약속을 인간이 지키도록 지원합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비옥한 땅과 적당한 양의 햇빛과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영혼이 자라려면 알 수 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온기와 지혜에서 빛나는 광채가 필요합니다. 인간영혼을 키운다는 것은 인간영혼이 더불어 존재하는 다른 모든 영혼들—식물의 영혼, 동물의 영혼—과 함께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과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방식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개별성과 고독을 보존하면서 원소적인 공유 공동체를 이루며 성장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공통의 지평이라는 전체주의적 폐쇄로 귀결되지 않는 더불어 살고, 더불어 자라고, 더불어 죽어가고, 더불어 순환하고 재생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기본소득을 인간 영혼의 경작에 필요한 원소들을 공급하는 물적 자원이라 믿습니다. 물과 불과 흙과 공기는 지상의 생명들이 먹고, 자고, 숨쉬고, 자라고, 변화하고, 사랑하고 짝짓고, 자신을 드

1) 루스 이리가레, 마이클 마더, 이명호, 김지은 옮김, 『식물의 사유: 식물존재에 대한 두 철학자의 대화』 (알렘: 2020), 312쪽.

러내고 키우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소적 토대입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보편적으로, 조건 없이, 공짜로 제공됩니다. 공짜^{free}는 자유^{freedom}입니다. 현대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 중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깊이 끌어당긴 것은 기본소득이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real freedom for all}를 실현할 수단과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분배의 정의보다 더 큰 인문적 호소력을 지니는 것이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개별적 존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원소적 토대”를 마련해줌으로써 자유와 자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노동이 노역^{toil}으로 변할 때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강요된 선택에 내몰릴 때 우리는 존재의 극단적 위축을 경험합니다. 위축된 존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혐오와 경멸, 원한과 시기심을 사회적 타자들에게 투사합니다. 무력감에서 비롯되는 공격성이 사회 곳곳을 쓰디 쓴 담즙질의 양심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때로 이 양심은 공정과 정의라는 아름다운 외피를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미 오백년 전에 영국의 작가 토마스 모어는 가상의 도시 유토피아에는 굶주리거나 구걸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이가 노동을 해야 하지만 누구도 궁핍에 내몰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부 성직자나 학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1일 6시간의 노동에 종사하지만 누구도 노예처럼 일만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평등하게 노동을 나누는 대신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와 쾌락을 보장받고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덕을 쌓는 데 쓴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자신의 정신을 가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키케로라면 영혼을 경작하는 기쁨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지만, 적어도 무상의 현금지급을 통해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와 쾌락을 보장받는다든 상상만은 유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자본주의사회는 역사상 최초로 상당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적 수준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회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서 흘러나오는 적대의 기운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깊은 허무주의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보주의자들은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할 언어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적 정직성과 도덕적 올바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전도된 의식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좌파가 잃어버린 진보의 언어를 되찾아야 합니다. 기본소득론이 21세기 진보의 언어로 힘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